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15-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4년 종교인식조사: 종교 간 갈등, 다른 종교와의 공존

2025. 2. 5.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우리 사회 종교갈등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 종교갈등 심각하다 53%, 심각하지 않다 39%

향후 종교갈등 전망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 56%

2024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3%가 우리 사회의 종교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다(매우 심각 12%, 대체로 심각 41%). 성별이나 세대와 관계없이 종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50% 내외이며,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다. 현재 종교를 가진 사람 중 53%, 종교가 없는 사람 중 52%가 종교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 신자의 59%, 불교 신자의 52%가 같은 의견을 보이며, 천주교 신자들은 '심각하다'(46%)와 '심각하지 않다'(50%)는 의견이 엇비슷하다.

향후 종교 갈등의 전망에 대해서는 56%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23%는 종교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며, 11%는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종교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자 중 37%는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52%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반면, 종교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응답자 중 68%는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 종교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한국은 종교 갈등이 표면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 사회이다. 개인의 신앙 자유가 보장되며,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배척하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적다. 종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드물다. 또한, 종교 인구가 전체의 절반 수준이며,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주요 종교들이 독점적인 우세를 점하지 않고 있다. 어느 하나의 종교가 사회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이며, 극단적인 종교적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은 것이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가 운영이나 사법적 판단에서 종교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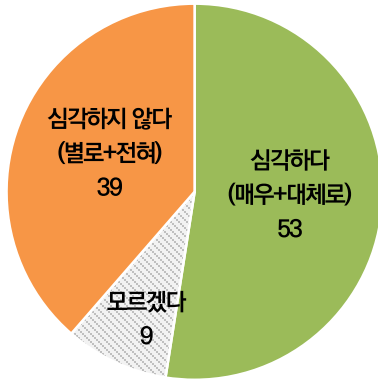
그러나 종교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결과이다. 이는 이슬람교를 비롯한 특정 종교에 대한 거부감, 종교 간 갈등, 종교 신자와 비신자 간의 갈등, 그리고 같은 종교 내 교파 간 갈등 등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종교 갈등에 대한 인식이 최근 갑자기 부각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2021년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서도 한국에서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61%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이었던 17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종교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언제든 표출될 수 있는 내재적 긴장감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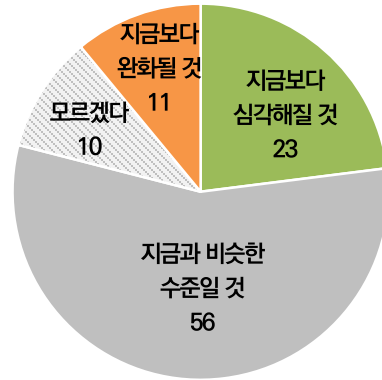
우리 사회 종교갈등 심각하다 53%, 심각하지 않다 39%
향후 종교갈등 전망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 56%

(단위 : %)

우리 사회 종교갈등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종교갈등은...



	사례수 (명)	우리 사회 종교갈등은...			앞으로 우리 사회 종교갈등은...			
		심각하다 (매우+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별로+전혀)	모르겠다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	지금보다 완화될 것	모르겠다
전체	(1,000)	53	39	9	23	56	11	10
성별								
남자	(493)	55	39	6	26	54	11	8
여자	(507)	50	39	11	20	57	11	11
연령								
18-29세	(157)	46	39	15	16	56	9	19
30대	(149)	53	34	13	23	57	7	12
40대	(176)	56	35	9	22	59	9	10
50대	(195)	55	39	6	25	56	12	7
60대	(175)	53	42	5	27	54	14	6
70세 이상	(148)	52	44	3	26	52	17	5
종교 유무								
믿는 종교 있음	(489)	53	41	6	24	54	16	7
믿는 종교 없음	(511)	52	37	11	23	58	7	12
현재 믿는 종교								
개신교	(209)	59	35	6	26	53	14	7
천주교	(102)	46	50	4	25	52	18	5
불교	(161)	52	42	6	21	55	16	8
우리사회 종교 갈등 인식								
심각하다	(527)	-	-	-	37	52	9	2
심각하지 않다	(388)	-	-	-	9	68	16	6
모르겠다	(85)	-	-	-	0	23	1	76

질문 : (우리사회 종교갈등 평가) 우리 사회의 종교갈등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사회 종교갈등 전망) 앞으로 우리 사회의 종교갈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4. 11.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타종교 및 종교인과의 관계

종교인이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느끼는 거리감보다 비종교인이 종교인에게 느끼는 거리감이 더 커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태도는 어떻게 다를까?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종교적 신념에 대한 수용도, 종교 행사 참여에 대한 거부감을 분석하여 종교 수용도를 확인해 보았다.

먼저,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 20%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비종교인 중에서는 39%가 종교인과 친구로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종교인이 나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느끼는 심리적 거리보다, 비종교인이 종교인에게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 더 큰 것이다.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수용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종교인 중에서는 45%가 다른 종교인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만, 비종교인의 경우 종교인의 신념 표현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응답이 71%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비종교인이 종교적 표현에 대해 종교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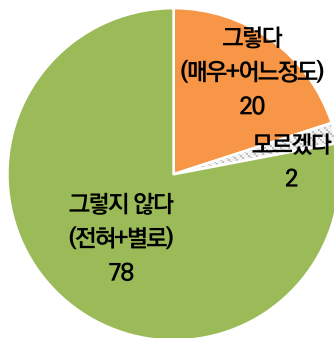
종교 행사나 의식 참여에 대해서는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종교인 중에서는 60%가 다른 종교의 행사나 의식에 초대받아도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는데, 특히 18~39세 젊은 신자(69%)가 60세 이상 신자(55%)에 비해, 개신교 신자(70%)가 천주교(51%)나 불교(53%) 신자에 비해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비종교인 중에서는 80%가 종교 행사나 의식에 초대받아도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향을 밝혔다.

타종교에 대한 종교인의 수용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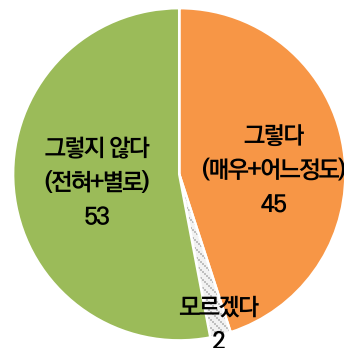
종교가 다른 사람과 친구로 지내는 것 불편 20%, 종교가 다른 사람이 종교적 신념 표현하는 것 불편 45%
다른 종교 행사나 의식에 초대받아도 참석하고 싶지 않다 6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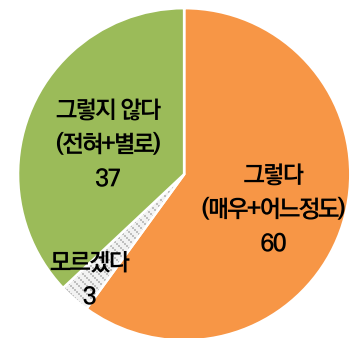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친구로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다른 종교의 행사나 의식에 초대
받으면 참석하고 싶지 않다



질문 : 종교와 관련한 다음 각각의 진술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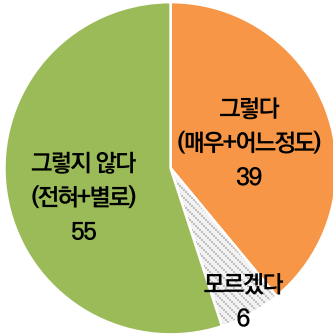
응답자 수 :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 489명

조사기간 : 2024. 11. 22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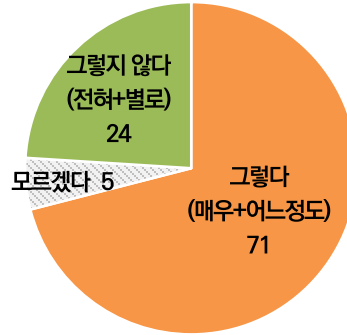
종교에 대한 비종교인의 수용성 인식,
종교를 가진 사람과 친구로 지내는 것 불편 39%, 종교인이 종교적 신념 표현하는 것 불편 71%
종교 행사나 의식에 초대받아도 참석하고 싶지 않다 8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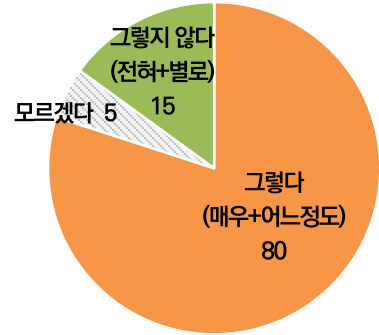
종교를 가진 사람과 친구로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종교 행사나 의식에 초대받으면
참석하고 싶지 않다



질문 : 종교와 관련한 다음 각각의 진술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 511명

조사기간 : 2024. 11.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전반적으로 타종교에 대한 종교인의 거리감보다, 종교인에 대한 비종교인의 거리감이 더 커

(단위 : %)

	종교적 차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종교적 신념 표현에 대한 수용도		(타)종교 의식이나 행사 참여 거부감	
	종교인	비종교인	종교인	비종교인	종교인	비종교인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친구로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	종교를 가진 사람과 친구로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다른 종교의 행사나 의식에 초대받으면 참석하고 싶지 않다	종교 행사나 의식에 초대받으면 참석하고 싶지 않다
전체	20	39	45	71	60	80
성별						
남자	21	36	44	71	57	79
여자	19	44	46	70	62	81
연령						
18-39세	18	37	45	68	69	83
40-59세	16	42	43	72	61	77
60세 이상	24	39	47	75	55	78
현재 믿는 종교						
개신교	24	-	44	-	70	-
천주교	12	-	40	-	51	-
불교	19	-	50	-	53	-

질문 : 종교와 관련한 다음 각각의 진술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교: 그렇다(매우 그렇다 + 어느 정도 그렇다) 응답 제시
응답자 수: 믿는 종교가 있는 응답자 489명, 믿는 종교가 없는 응답자 511명
조사기간 : 2024. 11.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종교인은 타 종교에 개방적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도 중시 60세 이상·개신교 신자는 종교적 확신과 전파 의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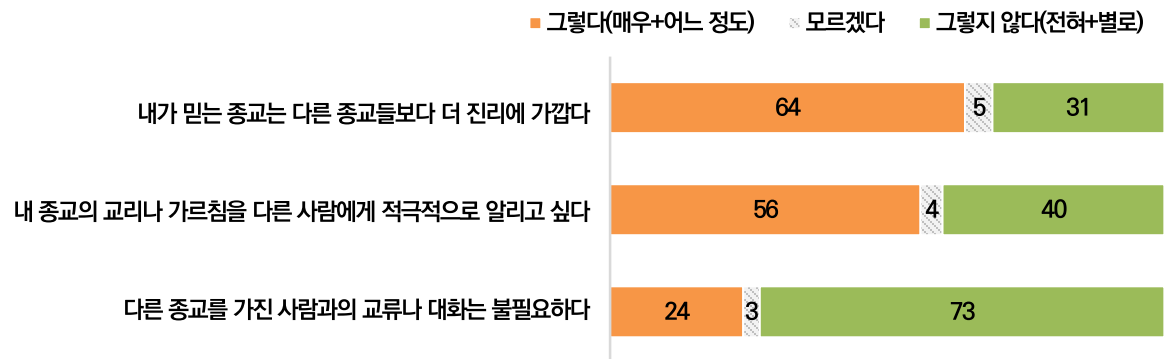
앞서 종교인 중 20%만이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친구로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의 연장선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의 교류나 대화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인은 24%이다. 다수의 종교인은 내가 믿지 않는 종교라도 이를 인정하며, 거리를 두지 않는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종교적 차이가 사회적 관계를 가로막는 중요한 장벽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타 종교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면서도, 종교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종교인 중 64%는 '내가 믿는 종교는 다른 종교들보다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내 종교의 교리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는 종교인은 56%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 및 불교 신자보다 강하다. 60세 이상 신자 중에서는 71%가 '내가 믿는 종교는 다른 종교들보다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며, 69%가 '내 종교의 교리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고 답했다. 개신교 신자 중에서는 81%가 '내가 믿는 종교는 다른 종교들보다 더 진리에 가깝다'는 입장인데, 이는 천주교 신자(57%), 불교 신자(46%)의 응답보다 크게 높다. 또한 개신교 신자 중에서는 72%가 개신교의 교리와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천주교(50%) 및 불교(38%) 신자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결과이다. 오히려 불교 신자 중에서는 불교의 교리와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주저하는 사람이 57%로 과반을 차지한다.

**종교인 중 64% '내가 믿는 종교는 더 진리에 가깝다',
'내 종교의 교리나 가르침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 56%**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의 교류·대화 불필요하다는 종교인은 24%로 낮은 수준

(단위 : %)



질문 : 종교와 관련한 다음 각각의 진술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 489명

조사기간 : 2024. 11. 22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60세 이상 종교인, 개신교 신자는 자신의 종교를 ‘더 진리에 가깝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고 인식
18-39세 종교인, 불교 신자는 그 반대

(단위 : %)

사례수 (명)	내가 믿는 종교는 다른 종교들보다 더 진리에 가깝다		내 종교의 교리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의 교류나 대화는 불필요하다	
	그렇다 (매우+어느정도)	그렇지 않다 (전혀+별로)	그렇다 (매우+어느정도)	그렇지 않다 (전혀+별로)	그렇다 (매우+어느정도)	그렇지 않다 (전혀+별로)
전체 (489)	64	31	56	40	24	73
성별						
남자 (208)	62	35	57	40	23	75
여자 (281)	65	28	55	40	24	72
연령						
18-39세 (104)	52	39	42	53	26	70
40-59세 (172)	62	32	49	46	22	74
60세 이상 (213)	71	26	69	29	23	74
현재 믿는 종교						
개신교 (209)	81	16	72	23	25	72
천주교 (102)	57	41	50	47	19	79
불교 (161)	46	46	38	57	25	72

질문 : 종교와 관련한 다음 각각의 진술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 489명

조사기간 : 2024. 11. 22 ~ 25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10월 기준 약 94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31,981명, 조사참여 1,401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3.1%, 참여대비 71.4%)
조사일시	• 2024년 11월 22일 ~ 11월 25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